

# 국제화 시대 발맞춘 소중한 경험

### 신화여중 국제교류부 중국위해제한국국제학교 방문

신화여자중학교(교장 김동훈) 국제교류부(1~3학년 학생 22명)는 교장선생님 및 지도교사 2명의 인솔 하에 지난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 위해제 중세 한국국제학교를 방문했다. 이들 국제교류부 학생들은 10월 11일 14시경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한 후, 위해제 국제공항을 통해 중세한국국제학교에 방문했다. 교내에서는 1박 2일 간의 일정으로 여러 가지 수업에 직접 참여하며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다.

국제교류부 대표 우모 학생은 신화여중의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비롯해 여러 가지를 소개했다. 22명의 방문 학생들은 한국어 수업, 국제부 원어민 수업, 중국부 원어민 수업에 직접 참여해 중국 속 한국국제학교 문화를 체험했다. 특히 국제부 원어민 수업에 참여해 영어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현지 학생들과 토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짧은 기간이지만 하루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단체 생활의 규칙과 중국식의 식·주를 체험하는 소중한 경험을 했다.

방문 기간 동안 깊은 우정을 나누고 학생들은 마지막 환송회에서 아쉬움의 눈물을 흘리며 훗날의 만남을 기약했다.

3학년 우모 학생은 “국제교류부에서 삼년째 활동하는데 특히 올해는 새로운 도시를 방문했고, 국제학교라는 곳을 체험하게 돼 너무 즐겁고 특별한 추억이 됐다. 신화여중 국제교류부를 통해 소중한 친구와 인니, 오빠를 알게 되어 너무나 감사하고 앞으로 평생 친구로서 연을 이어나갈 것이다. 앞으로 영어공부와 중국어공부도 열심히 해 국제학교 친구들과 외국어로 소통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다. 더욱이 졸업을 앞둔 3학년 때에 많은 추억을 쌓고 소중한 경험을 하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번 신화여자중학교 국제교류부 학생들의 중국방문과 교류 경험은 더욱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며 글로벌 마인드를 키우고 폭넓은 세계관을 갖는 초석이 될 것이다. 양교 학생들의 만남은 국제화 시대에 발맞춘 뜻깊은 만남이 아름답고 뜻 깊은 소중한 경험으로 남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인영섭 기자 as@

# “친구들이 골든 벨 내가 울렸다”

### 영중중, 우리역사 골든벨 행사 실시

영중중학교(교장 문관식)는 10월 21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에게 교내 대회를 통해 사회·역사 교과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꿈과 끼를 찾는 자기 주도적 진로 개발 능력을 함양 시키고자 ‘2016 우리역사 골든벨 대회’를 2층 강당에서 실시했다.

각종 흥미를 통해 사전에 접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역사 교과서 내용에서 골든벨 문제를 출제해 골든벨 단계를 달리 결정되며 일정 단계 이상의 문제를 풀며 수상자를 결정했다. 최우수상은 최준명(3), 우수상은 김민우, 윤태영, 나지원이 선정됐다. 행사를 담당할 장서정 선생은 “골든벨을 준비하며 각종 자료를 찾고 선생님이 질문하

며 알아가고자 노력하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교사로서 보람을 느끼며 지속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3학년 김서현 학생은 “역사 골든벨을 준비하며 선생님이 질문하고 인터넷을 찾아가며 많은 것을 알게 됐다. 고등교육에 가서도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학업을 열중 하겠다”고 했다.

문관식 교장은 골든벨을 통해 “사회와 교내 대회를 통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및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진로 적합성에 따른 진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많은 학생들이 골든벨을 통해 자기 주도적 진로를 향상 시키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인영섭 기자 as@



# “더 많은 학생들에 지원 못해 아쉽다”

### 인천시 서구 민들레지역복지, 신현중 수학여행비 지원

민들레지역복지(대표 이효민 신부)는 지난 10월 13일 신현중학교(교장 이석봉)에 저소득 청소년들의 수학여행비 지원을 위한 장학금 60만원을 전달했다. 전달된 후원금은 서구소재 신현중학교 학생들의 수학여행비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민들레지역복지 관계자는 “더 많은 학생들에게 지원하지 못해 아쉽지만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참석한 허상오 교장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수학여행비 지원이 정서적 안정을 주고 학업진척의 소중한 추억을 남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민들레지역복지는 비영리 사회복지 시설 기관으로 지난 2005년 설립된 뒤 매년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한 교복비, 미납급식비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후원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인영섭 기자 as@



# 항상 책 가까이 하는 어린이들

### 인천청학초, 독서 축제 한마당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은 역시 책을 읽기에 참 좋은 독서의 계절이다. 가을이 깊어가는 10월 10-13일 인천청학초등학교(교장 임중현)에서는 독서축제 ‘청학이 북 북 스티커 날’이 열렸다.

행사 기간 동안 도서관에서는 학부모 명세사의 도움을 받아 학급별 미션활동인 칭찬 글마루 5행시 짓기, 인물 이름 맞추기, 한글 퀴즈 맞추기, 책 제목 조상퀴즈 맞추기, 책 추천하는 스크래치 카드 쓰기, 책 퍼즐 맞추기 등 진행해 미션 완료한 어린이에게는 상품을 줬고, 개인별 체험활동인 색교방장제 만들기, 캘리그라피 책감기 만들기, 포스트잇 북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체험했다.

또한 축제기간 중 한 달 이상 도서관 대출 기록이 없는 친구를 찾아서 도서관에 데리고 대출 시키면 무아동 모두 상품을 주는 휴먼 이용자를 잡아라, 컬러링 포스터를 색칠 도구로 직접 색칠해 주며 보는 힐링 컬러링 북 활동을 진행해 도서관 북도에 전시했고, 연체해 책을 대출 할 수 없었던 어린이들의 인체를 면제해줬다.

이러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도서관이 책만 있는 딱딱하고 지루한 곳이 아닌 소통의 즐거운 놀이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좋은 기회였다.

임중현 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일회성 도서관 행사에 그치지 않고, 항상 책을 가까이 하며 책을 찾고, 책을 보고 또 책과 함께 꿈을 키우는 청학 어린이들이 되길 기대한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인영섭 기자 as@

# ‘미래사회 변화와 우리 자녀 교육 방향’

### 구월여중, 교실수업 개선 위한 교직원 연수

구월여자중학교(교장 서정옥)는 10월 17일 변화하는 미래사회와 이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학생교육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교직원 연수 대상을 하는 연수를 진행했다.

교육활동에 있어 전통적인 기법에서 벗어나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지식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앞으로 사회가 요구하는 지식체계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에서 벗어나 ‘알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로 변화함을 인식

했으며 학생 교육에 있어서 이러한 변화를 인식하고 이를 대비해 전문성을 함양하고 효과적으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등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10월 13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수와 아울러 교직원 연수를 통해 학교와 가정에서 학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하며 이번 연수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올바른 교육의 방향을 세우는데 계기가 됐으면 한다. 인영섭 기자 as@



**낙지요리전문점**

## 행복한 낙지

3가지 맛으로 골라드세요!!!

1. 화끈하게 매운맛
2. 감칠맛나게 기본맛
3. 순하게 안매운맛

유식은 건강입니다. 저희는 좋은재료와 정성으로

가족모임 단체모임 회식회식

**본점**  
인천시 연수구 정방로 171, 1층 (옥련동) 옥련초교 청문암 예약문의 (032)834-7740 단석식 및 대형주차장반비

**낙지요리전문점**

불판과 지참시 1,000원부터

## 행복한 낙지

산낙지전모양 산낙지찜

산낙지전골 산낙지찜판

※모든 메뉴 포장

막걸리에 파천도 준비되었습니다

낙지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곳입니다.

**834-7740**

# 부모와 자녀 함께 배우는 유익한 시간

### 인천남부종합학습클러스닉센터 가을캠프 실시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승산)은 10월 22일 인천유학초등학교 강당과 2개 교실에서 남부 관내 초등학교 5학년 학생 및 학부모 110여명이 참석해 “2016 인천남부종합학습클러스닉센터 가을캠프-Learning-man 부모자녀 학습특강”을 가졌다.

이날 캠프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습과 공부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음을 공감하는 시간을 제공하고, 학생의 개별 시간 관리와 자기주도적 학습이 되도록 스스로 공부하는 Learning-man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취지로 마련했다.

가을캠프 운영을 위해 자녀와 부모가 함께 하는 ‘공부의 이해-패러다임 바꾸기’, 학생 소그룹 대상 ‘학습 계획 세우기-시간관리 전략’을 주제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친목이 이루어졌다. 자녀와 달리 학부모에게는 자기주도적 학습에 대한 전문강사의 특강이 이루어졌다.

캠프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이번 캠프를 통해 학습 계획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고, 아이들마르쳐서 나도 함께 공부하고 싶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학생들도 “집중하는 방법을 배웠다” “이루고 싶은 꿈을 위해 시간 관리를 잘 해야겠다”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더 생길 것 같다”는 등의 다짐과 기대감을 전했다.

김유주 초등교육과장은 학생들 교육을 위해 애쓰는 학부모님의 열정에 고마움을 표하면서 “앞으로도 학부모님이 남부교육지원청과 함께 사뭇물을 건리는 학생에게 물다리의 역할을, 꿈을 향해 오르는 사다리가 되어주는 지원을 계속해 나가기를 바란다”는 당부의 말을 전하며 남부종합학습클러스닉센터 가을캠프를 마쳤다.